

인터넷총국 (홈페이지 http://data.rutc.com)	
후원: (국민은행) 682401-01-338981 차동호(인터넷총국)	
분류	주일예배 설교 - 주일1부
제목	세 절기의 추수감사절
성경	출애굽기 24:14-19
일시/장소	2015년 11월 19일, 임마누엘 서울교회
강사	류광수 목사 (정리: 차동호 목사)

♣ **성경말씀 (출애굽기 24:14-19)**

- 14/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 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 15/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 16/ 여호와와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옛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 17/ 산 위의 여호와와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 같이 보였고
- 18/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사십 일 사십 야를 산에 있으니라

♣ **요약 자료** ♣

♣ **서론**

- ▶ 오늘 우리는 성경에 있는 추수감사절을 찾아내야 된다. 양의 피를 바르는 날 나오게 되었다. 유월절이다. 그리고 나와서 죽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곡식을 거두었다. 맥추절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죽는 줄 알았는데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들었다. 수장절. 유월절은 구원을 의미한다. 오순절은 성령의 능력, 수장절은 천국 배경을 의미한다.
- ▶ 수장절, 천국배경에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 1) 사탄이 내린 뿌리를 완전히 뽑는 제양 막는 시작이다.
 - ▶ 이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 (1) 민족주의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 (2) 계속 전쟁을 일으키는 패권주의에 힘을 쓰고 있는 애굽이 이스라엘을 정복했다.
 - (3) 경제를 위해서 계속 통합주의 정책을 썼는데 그것이 바벨론, 앗수르이다.
 - (4) 제2의 바벨탑 운동을 쌓기 시작한 것이 통합종교이다.
 - 2) 그 다음에 방법을 알아야 된다.
 - (1) 영혼 사랑- 구원이 무엇인가 아는 사람
 - (2) 나라 사랑- 전도가 무엇인가 아는 사람
 - (3) 세계 사랑- 선교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다.
 - 3) 수장절의 내용을 알아야 된다. 천국 배경의 내용이 무엇인가?
 - ▶ 창3장에서 빠져 나오는 것이다. 창6장 네피림에서, 창11장 무너질 바벨탑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전세계 영매들이 붙잡은 행13장, 16장, 19장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인간의 운명 6가지에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 ▶ 수장절의 비밀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그들을 살리겠다는 것이다.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

1. 수장절은 해방의 시작

- 1) 양의 피 바른 그날에 이스라엘 민족은 다 해방되어 나왔다.(출 3:18, 사탄에서 해방)
- 2) 노예에서 해방되게 된다. 눈에 안보이게 잡고 있는 흑암세력에서 빠져나오게 된다.
- 3) 드디어 출애굽의 시작이다.

2. 수장절은 광야 생활의 승리(하나님의 자녀)

- 1) 유월절 이 말은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오순절은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고, 수장절은 하나님과 천국을 설명한다.
- 2) 이 언약을 붙잡고 있었는데 광야의 기적이 일어났다.
- 3) 광야 생활에서 승리한 것이다.

3. 수장절은 세상 살리는 복음의 성취(세상 살림)

- 1) 행1:3,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설명했다.
- 2) 그 말을 가장 잘 알아들은 바울이 행19:8-10절에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다. 행2:1 드디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 3) 행3:20,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4. 결론

- ▶ 이 축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세계를 살리는 것이다. 앞으로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의 주역 국가가 어느 나라인가? 한국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램넛트들이 준비해야 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니 말씀을 믿으라.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엄청난 배경을 주시려고 하신다. 오늘 여러분 때문에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기 바란다. 아무것도 걱정할 것 없다, 하나님의 나라 이를 주역이 여러분이다. 여러분이 이 축복속에 후대까지 영원히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The end)

♣ **축회 자료** ♣

♣ **서론**

- ▶ 오늘도 하나님의 새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는 큰 절기다. 백화점이나 식당도 문을 다 닫더라. 왜 그러냐 했더니 온 가족이 모여서 휴식하고 놀기도 하는 그런 절기다. 유럽에서 건너와서 미국에서 시작한 큰 절기다. 참 좋은 절기고 맞는데 꼭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 있는 추수감사절을 찾아내야 된다.
 - ▶ 일곱 명이 시대를 바꾼 내용이다. 일곱 명이 누구였는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다. 이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었다. 그것을 짓먹이면서 헤어질 때까지 가르친 것이다.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모세와 아론이다. 이 두 사람을 도운 사람이 이드로 장로다. 모세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후계자가 여호수아와 갈렙이다. 그중에 이름 없는 여자 한 명이 도왔는데 시대를 바꾸는 일이 일어났다. 라합이다. 이 일곱 명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다. 이 일곱 명이 큰 절기 세 가지를 전 세계와 애굽에 전달했다. 기록에 남게 되었다.
 - ▶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을 마음속에 담으시기 바란다. 양의 피를 바르는 날 나오게 된 것이다. 그것이 유월절이다. 그리고 나와서 죽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곡식을 거둔 것이다. 맥추절(오순절)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죽는 줄 알았는데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들었다고 해서 수장절, 추수감사절이다. 이 세가지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유월절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순절은 성령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수장절은 천국배경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나중에 다 알곡처럼 거두어들여서 천국에 간다는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추수감사절보다는 수장절이라는 말이 더 정확하다. 거두어서 저장해 놓는다는 말이다. 얼마나 의미가 큰가? 그래서 수장절이라는 말이 더 맞고, 여러분이 더 이해하려면 천국배경이라고 하면 더 좋다. 엄청난 메시지다. 이걸 단순한 나라의 절기로, 축제로 끝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이걸 시대를 바꾸는 내용이다.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면 가문을 바꾼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남은 생을 바꾸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가끔 가다가 이런 생각이 들죠?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걱정할 때가 있을 것이다. 아침마다 여러분이 눈을 뜨면 기도하라. '나를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는 이가 하나님입니다. 나의 삶과 죽음의 날짜를 알고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걱정할 것 없다. 그러나 '오늘도 새로운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늘 하는 사람하고 늘 염려하는 사람하고는 다르다.
 - ▶ 수장절, 추수감사절이라는 천국배경에는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여러분이 오늘 추수감사절, 천국배경의 축복인 절기를 지키기 이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 1) 이 자리가 시작된 곳이 광야에서다. 뭘 말하는가? 사탄이 내린 뿌리를 완전히 뽑는 제양 막는 시작이다.
 - ▶ 이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 (1)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이 아니라 늘 민족주의라는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민족은 사랑해야 하지만 민족주의는 또 다른 말이다. 이 사람들은 늘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다.
 - ▶ 북한에 가서 연극을 하나 봤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 그 별이 김일성이다. 그래서 세계를 정복하는 뮤지컬이다. 내가 그 뮤지컬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여서 하더라.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얘기해줄 수 있다면 알려주고 싶은 게 있다. 민족은 사랑하지만 민족주의는 아니다. 성공한 적이 없다.
 - 심지어 여호와도 이스라엘의 여호와라고 했다. 틀렸죠? 이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늘 민족주의로 사로잡혀 간 것이다. 거기다가 패권주의에 힘을 쓰고 있는 애굽이 이스라엘을 집어먹은 것이다. 시대마다 그랬다. 지금도 그렇다. 사탄의 흐름은 똑같다. 얼마만큼 사탄에게 잡혔느냐 하면 전세계를 살리라고 이스라엘에 복음을 줬더니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여호와와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고 너희의 구세주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게 민족주의다. 그러니까 계속 제양을 당한 것이다.
 - (2) 계속 전쟁을 일으킨 패권주의가 지금도 있는데 이게 애굽이었다. 그래서 망했다.
 - (3)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 경제를 위해서 계속 통합주의 정책을 썼는데 그게 바벨론, 앗수르다. 지금하고 똑같다. 시대의 흐름은 똑같다.

(4)제2 바벨탑 운동을 쌓기 시작한 것들이 통합종교다. 이게 고스란히 그 시대에 다 있었다.

▶우리가 왜 이걸 붙잡아야 되느냐? 지금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있는 게 아니고 심각하다. 제 메시지를 듣는 분 가운데 역사 공부를 많이 한 분도 계시는 것이다. 확인해보라. 이게 애굽 시대, 로마시대에 계속 해서 있는 것이다. 지금도 있다. 사탄이 내린 뿌린다. 이것을 막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야 되는 것이다. 오직 세 절기와 피 언약이라야만 해결되는 것이다. 여 러분, 추수감사절은 그날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찾는 것이다. 굉장한 것이다.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한다.

2)그 다음에 방법을 알아야 한다.

▶기독교인은 꼭 알아야 한다. 영혼 사랑, 나라 사랑, 세계 사랑이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그런 성경과 빛나라 것이다. 영혼사랑, 나라사랑, 세계사랑. 이 세 개가 복음의 방법이다. 이거 하고 안 맞는 것은 틀린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얘기하였다. 나라를 살리고 너로 말미암아 네 세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으리라고 했는데 듣지 않았다. 이만큼 이념과 세계관은 무섭다. 그 외의 것을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했지만 듣지 않는다. 하나님이 망하지 말라고 계속 축복하셨지만 듣지 않는다. 그래서 전 세계는 전세가 1만6천 번이나 터지고 한꺼번에 일어난 게 두 번이나 일어났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위험한 것으로 가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가시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길 바란다. 그게 수장절이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이게 추수감사절이다. 미국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정확하게는 수장절이다. 수장절의 비밀은 뭐냐? 천국 비밀이다. 유월절의 비밀은 구원이다. 오순절의 비밀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이 축복을 안 받겠다고 한다. 그래서 세계는 점점 점점 어려움이 오는 것이다.

(1)영혼사랑이라는 말은 구원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다.

(2)나라사랑이라는 말은 전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다.

(3)세계사랑이라는 말은 선교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다.

▶이걸 몰라서 이스라엘은 구원 받은 하나님 사람 빼고는 거의 수천 년간 후대들이 고생했다.

3)이 수장절이라는 추수감사절, 천국배경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그 내용이냐. 내용을 알아야 할 것 아닌 거. 아니 수장절의 내용이 뭐냐? 천국배경의 내용이 뭐냐? 그걸 알아야 한다.

▶창3장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창6장 네피림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행11장 무너질 바벨탑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전 세계 영매들이 사로잡은 행13장, 16장, 19장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인간은 6가지 운명의 울무를 바꿀 수 없다. 거기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굉장하죠? 이게 수장절의 배경이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으시기 바란다. 애굽보고 너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멸망 받으니까 지금 빨리 고쳐라 하고 하니가 비슷했다.

바벨론보고 얘기했다. 느부갓네살 왕은 정신이 이상해져서 산을 헤매다 죽게 될 것이니 빨리 돌아오라고 하니가 비슷했다. 무슨 소리 하느냐고 했다.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그대로 되었다.

기독교인들이 너무 잘못하고 거꾸로 알고 잘못 믿고 있으니까 많은 불신자들이 오해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지금도 그들을 살리라고 하신다. 기독교인의 책임이 크다. 추수감사절부터 잘못 알고 있지 않나? 그렇지 않나? 칠면조 고기 먹는 날이라고 알고 있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니다. 미국은 백화점 문을 닫고 가족끼리 즐겁게 노는 날이라고 알고 있다. 그래서 이날마다 우리가 미국에서 집회를 하는데 처음에는 하지 말자고 하더라. 왜 그러냐 했더니 추수감사절에는 전 가족이 모이기 때문에 집회에 안 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랬다. 우리는 원래 명절 때 한다. 이번 주간에 벌써 미국에 있는 램턴트들이 1200명 넘게 등록을 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의 의미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모르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니 불신자에게 욕을 먹어 마땅하다. 불신자에게 조롱받는 게 마땅하다. 추수감사절이 뭔지도 모른다. 수장절이 뭔지 모른단 말이다.

▶수장절의 배경이 뭐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사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아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 감사를 말한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그들을 살리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될 하라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 그렇지?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서 일 열심히 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여러분이 직업 타령하지 말라. 여러분이 저 길바닥에서 청소하는 사람이라도 괜찮다. 세계 최고의 청소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라. 그게 수장절이다. 어마어마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감옥소 가서도 역사가 일어났다. 다윗은 목동으로 있으면서 최고의 목동이 되었다. 그런데 그 목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렇지? 그게 천국배경이다.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간단하게 몇 가지를 얘기하겠다.

1.수장절은 '해방의 시작'

▶이 천국배경의 수장절이 첫째로 뭐냐? 해방의 시작이다. 해방 되었지 않나.

1)이스라엘 민족이 출3:18의 언약을 붙잡고 양의 피 바른 그날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해방되어 나온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날 완전히 사탄에게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2)그리고 무엇인가? 노예에서 해방된 것이다. 우리가 지금 노예 아닌가? 경제의 노예, 세상의 노예가 되었는데 그 노예에서 빠져나와버리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게 이 흑암세력이 여러분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말한다.

3)어떻게 하면 되는가? 정말 알고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저는 어느 날 뭘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다. 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내가 몇 번 비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었다. 뭘 해야 되는 줄 알았다. 아니다. 군대 가는 사람들은 군에 가서 뭘 해야 되는 줄 안다. 아니다. 군 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엄청난 것 아닌가.

▶그래서 출애굽의 시작이 되었다 그 말이다. 사탄에게서 해방, 노예의 삶에서 해방, 드디어 출애굽의 시작. 이게 수장절 천국배경이다. 그러니 여기서 시작된 절기다. 이게 미국에서 시작된 절기가 아니라 여기서 시작된 것이다.

2.수장절은 '광야 생활의 승리'(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 수장절 천국배경은 뭘 말하느냐? 광야 생활의 승리다. 우리가 눈에 안 보이게 지금 광야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이 가다가 힘들다고 너무 낙심할 필요 없다. 지금 광야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구원 못 받았다는 것은 노예가 되어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나? 그래서 이 천국배경이라는 말은 광야 길 가는 중에 승리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1)유월절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렇지? 오순절은 성령의 역사를 설명한다. 수장절은 하나님과 천국을 설명하는 것이다.

2)이 언약을 붙잡고만 있었는데 광야에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 홍해를 가르신 것이다. 지금도 애굽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홍해가 간혹 가다 갈라질 때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해가 간혹 갈라진 증거들을 이집트에서 봤다. 그때 건너간 것은 하나님이 갈라져 건너갔다기보다는 이게 간혹 가다 한 번씩 갈라진다는 것이다. 나는 그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만약에 그렇다면 저 기적이다. 하나님이 갈라지는 타임에 맞춰서 이스라엘을 띄워줬다는 말이 아닌가. 그렇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되어있지 않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오늘 너희들이 저 애굽 군대를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홍해를 가리켰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광야 길 가는 동안에 다 죽는다고 했다. 거기를 어떻게 잡니까? 아이들과 같이 가는데 하나님은 뜨거운 태양에서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셨다. 밤에 너무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다. 광야 길 가는 동안에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다. 영양실조 될까 싶어서 메추라기를 보내사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호한 것이다. 그리고 출14:19에 보면 주의 사자가 앞서, 주의 사자가 뒤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했다.

3)광야 생활을 승리한 것이다.

3.수장절은 세계 살리는 '복음의 성취'(세상 살림)

▶이 추수감사절, 수장절의 천국배경은 세 번째로 뭐냐? 세상 살리는 복음 성취다. 이제 기독교인이 세상 살려야 되겠다. 정말 추태를 그만 부러야 되겠다. 정말 기독교인이 나라 살리고 세상 살리고 저 세계 살려야 되겠다.

1)그래서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불러서 하신 마지막 얘기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설명하신 것이다. 그게 수장절의 배경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설명했다.

2)그 말을 가장 잘 알아들은 바울이 행19:8-10에 보면 담대히 석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에, 북한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흑암세력은 오늘 결박되기를 기도하기 바란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셨다. 마12장에 말이다. 그렇지? 지금 여러분이 가는 곳에, 저 북한 땅에, 전 세계 어두운 곳에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예수님이 마12:28-30에 설명하셨다.

▶그리고는 감람산에 불러서 또 설명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사실은 아무 것도 걱정할 필요 없다. 이 언약을 붙잡고 살려야 된다.

▶드디어 행2:1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랬다. 수장절에 대해서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있다.

3)천국배경에 대해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빌3:20,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엄청난 배경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그 말이 그때 당시에도 마시민권이 대단했다.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시민권

이 대단하다.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이 있다.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각 정복한 지역에 아주 독특한 사람이나 관습을 집안에는 로마시민권을 줬다. 바울의 집안이 그랬다. 대단하죠? 로마가 정치를 잘 하지 않나. 전 세계를 사로잡고 그 다음에 우상 세우고 로마시민권을 줬다. 어느 정도 센가 하면 감옥소에 들어가도 로마시민권을 내보이면 다르게 대우했다. 그런 기록이 행16장에 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가?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에 있다가 아니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사실이려면 엄청난 배경이겠조.

4. 결론

▶그런데 이 축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세계를 살리는 것이다. 저는 가끔 많이 기도해본다. 앞으로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의 주역국가가 어느 나라겠는가? 그걸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세계복음화를 다 하는데 시대마다 주역국가가 돌아가면서 있었던 말이다. 초대교회 때는 이스라엘이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로마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로마를 강하게 만드셨다. 로마를 통해서 많은 길을 만들었다. 그레고리는 세계복음화를 이룬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음의 주역이 어디로 갔는가? 영국으로 갔다. 영국으로 가니까 얼마만큼 영국을 축복했는가 하면 대영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다고 할 정도였다. 그런데 이 영국이 복음을 약화시켜버리고 마리아를 높였다. 그래서 이 방향을 독일로 틀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일으킨 루터가 독일에서 일으킨 것이다. 그런데 역시 유럽이 복음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 복음의 주역의 방향을 미국으로 돌린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축복하셨는가 하면 유럽 전체의 국방비 합친 것이 미국보다 작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복음의 주역 국가를 하나님이 어디로 하시겠는가? 저는 그것이 굉장히 궁금하다. 한국일지도 모른다. 꼭 한국이라고 하면 다른 나라가 욕하겠조. 한국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 램넛들이 준비해야 된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배경을 아는 사람은 어떤가?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 한 분이 있다. 이분이 진짜 복음을 알고 있는 분이다. 이분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다. 이분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 검정고시를 쳤다. 자기 동생들은 다 일류대학 보냈다. 그리고 자기는 밑에서 일을 했다. 그런데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일하느냐? 그 회사 안에 어려운 것은 자기가 다 한다.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이 고맙다고 인사할 것 아닌가. “아닙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왜요?” “제가 조건을 걸었거든요.” “무슨 조건입니까?” “협한 일은 제가 다 하고 주일날은 쉬게 해달라고, 교회 가게 해달라고” 그때만 해도 옛날이라 주일을 한 달에 두 번밖에 쉬지 못했다. 거의 모든 회사가 그랬다. 그런데 그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될 힘든 일을 자기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수구나 굴뚝같은 것을 청소하면 몸에 냄새가 날 정도인데 그걸 자기가 다 한다.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한 것이다. 감사하다. 나는 교회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이분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장로님을 통해서 역사하셨다. 제일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너무 회사를 살리니까 자꾸 올라가는 것이다.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는가? 국가에서 새마을 연수원 교수로 임명했다. 당신이 모든 공무원들 훈련시키라고, 그래서 강의했다.

▶우리는 아무리 낮은 곳에 가도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있다. 기억해야 된다. 또 우리는 높은 곳을 생각할 수 있다. 낮은 곳만 보는 게 아니다. 각 나라의 대통령들이 높은 곳에 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저 이승만 대통령 때, 박정희 대통령 때 어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때 10년 허송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대통령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그렇죠? 영어 잘하는 대통령을 세워서 우리나라에 구제품을 많이 가져왔지 않나. 그렇죠? 용감한 대통령 세워서 나라를 정리했지 않나. 또 김대중이나 노무현 대통령 같은 사람을 세워서 많은 민주화를 시켰다. 북한하고도 문을 열고 그랬지 않나. 다 필요한 분들이다. 나는 그분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본다. 그렇죠? 그걸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사람이다. 전 세계는 어떻게 보느냐?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라. 그 사람이라야 성경을 아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다. 전 세계는 한 가족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있다.

▶성경말씀하고 여러분이 안 맞으면 여러분을 고쳐라. 하나님을 고치려고 하면 안 된다. 아시겠는가? 아니 성경하고 나하고 너무 안 맞아? 그러면 고쳐라. 왜 그러느냐?

나는 그런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다. 당신이 200년 살 자신 있는냐? 2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그렇게 세계를 다 아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 나는 또 물어보고 싶다. 당신이 아는 게 많겠느냐, 모르는 게 많겠느냐? 양심적으로 대답해봐라. 모르는 게 많다. 당신이 경험한 게 많겠느냐, 안 한 게 많겠느냐? 안 한 게 더 많다. 당신 눈에 보이는 게 많겠느냐, 안 보이는 게 많겠느냐? 안 보이는 게 더 많다. 그래도 안 믿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하고 싶다. 당신의 제삿날이 언제인지 아느냐? 모르지? 아직 안 죽었으니 모른다. 그걸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으란 말이다. 기독교인이 문제다. 복음을 영터리로 하고 있다. 성경을 바르게 하고 있지 않다.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성경 반대 것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그랬지 않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다. 전 세계를 살리라고 하니까 전 세계는 원수라고 했다. 그러니 후손들이 맞아죽는 것이다. 우리민족은 선민이고 전 세계는 이방인이라고 말하니까 후대들이 맞아죽는 것이다.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는 엄청난 배경을 주시려고 다 주셨는데 안 믿으니까. ▶오늘 여러분 때문에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아무 것도 걱정할 필요 없다. 하나님의 나라. 그거 이룰 주역이 여러분들이다. 기독교인이 올바르게 해야 된다. 기독교인부터 복음대로 해야 된다. 기독교인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야 그들을 살릴 수 있고 도울 수 있다.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후대까지 영원히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한다. 기도하겠

다. (The end)

(기도)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바르게 회복하게 해주옵소서.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부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he end)

세계복음화 상임위원회 인터넷총국

①<http://data.rutc.com> ②<http://www.jcking.net>

총 국 장 : 김성호 목사 (☎010-3505-5684)
 실무국장 : 차동호 목사 (☎010-5375-9383 ☎3759383@hanmail.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682401-01-338981 차동호 (인터넷총국)